

한국 가족의 홈스쿨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Homeschooling Experiences of Korean Familie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 김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Master : Kim, Hyeon-Ju

Associate Professor : Yang, Sung-Eu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y homeschooling families choose homeschooling instead of public education and the changes and adjustment processes that those families undergo during their homeschooling perio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are 18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more than 2 years of homeschooling. Mothers, fathers, and children all participated in a series of interview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four stages of phenomenological study as presented by Giorgi.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belief of homeschooling families that "homeschooling is not a mere educational method but a life style." Initially, they choose homeschooling as a mere educational method, but the results here show that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creased and family cohesion was strengthened as time passed.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many aspects of life begin to change for those who undertake homeschooling, including the values, statuses, and rules of the family. Thus, homeschooling can become a lifestyle.

▲주요어(Key Words) : 홈스쿨링(homeschooling),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I. 서론

오늘날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 구조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가족관계 그리고 친밀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1999년에 31분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29분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시간은 1999년에 6분이었던 것이 2004년에

는 5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 통계청, 2004). 반면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의 경우 고등학생의 평일 학습 시간은 10시간 47분으로 5년 전인 2004년 조사보다 3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은 9시간 40분, 초등학생은 7시간 49분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19분과 16분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09). 즉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과 비교해볼 때 아동·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생활실태는 부모-자녀관계의 친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가정이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홈스쿨링이란 학교와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김현주 (E-mail : guseb85@naver.com)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같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Griffith, 1998/2001), 국내에는 1999년 1월 대안교육 전문지인 『민들레』의 창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현병호, 2001). 이후 부모들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홈스쿨링 가정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정일환·이명옥, 2006), 앞으로도 그 수는 상당 기간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은희·박선희, 2009). 하지만 미국의 홈스쿨법적보호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HSLDA, 2008)는 한국의 홈스쿨링의 상황을 홈스쿨링을 법으로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홈스쿨링이 금지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홈스쿨링에 대한 태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매우 모호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홈스쿨링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홈스쿨링과 관련된 쟁점은 홈스쿨링 아동의 발달이다. 특히 홈스쿨링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성취에 관한 논의는 홈스쿨링이 등장한 이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2%가 홈스쿨링 아동이 제대로 된 사회화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Mayberry et al., 1995), 홈스쿨링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홈스쿨러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홈스쿨러들은 사회적·심리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도 원만하며(Taylor, 1986),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 교류의 폭도 매우 넓다는 것이다(Montgomery, 1989). 또한 홈스쿨링 학생들의 사회성 점수가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사회성 점수보다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홈스쿨링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홈스쿨링 아동들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고립된다고만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만나며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홈스쿨러들의 사회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사회성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서 시작된다(Medlin, 2000).

홈스쿨링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홈스쿨링을 통해 아동들의 읽기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학업성취점수의 경우 홈스쿨러들의 평균점수가 일반 학생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ay, 2000). 또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에서도 일반학생들에 비해 홈스쿨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환, 2008). 홈스쿨링은 새로운 수업의 적용이 학교교육에서보다 쉽고 빠르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홈스쿨링은 학교보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홈스쿨링 가정의 안정된 환경은 홈스쿨러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인지적인 학업성취에 기여한다는 것이다(Divoky, 1983).

반면 홈스쿨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

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홈스쿨링부모들의 경우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 교육, 사회의 흐름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대학 만능주의와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영, 2000). 또한 이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며 특히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인식한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가 강화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반성숙, 2002). 홈스쿨링 가족은 홈스쿨링 과정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하고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에서 벗어나는 부모-되기의 과정을 경험하며(서덕희, 2010), 이러한 경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선행연구의 경우 외국의 자료에 의존한 미국의 홈스쿨링 실태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홈스쿨링을 탐색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김민환·권동택, 2000), 미국의 홈스쿨링 제도화 과정을 탐색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 연구(이명옥·정일환, 2008)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홈스쿨링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된 미국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홈스쿨링의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홈스쿨링 운영 및 실태에 관한 연구(김혜실, 2007; 진대원, 2001) 및 홈스쿨링의 실태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연구(권근숙, 2002; 김진숙, 2004), 홈스쿨링에 대한 종교적인 접근의 연구(박진숙, 2008)도 진행되었다. 이는 홈스쿨링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피상적인 접근에 그쳐, 국내 홈스쿨링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홈스쿨러와 일반학생의 사회성을 비교하거나(김선영, 2009),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의 인식을 탐색하고(김현주, 2007), 홈스쿨링 경험을 탐색한 연구(서덕희, 2006) 등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홈스쿨링의 연구는 미국이나 국내의 홈스쿨링의 현황 및 실태 파악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주로 홈스쿨링의 종교적인 의미나 교육적 의미에만 집중했을 뿐 국내의 홈스쿨링 가정의 홈스쿨링 선택의 동기와 홈스쿨링의 적용 및 변화 등의 홈스쿨링 경험을 가족 전체의 시각으로 조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홈스쿨링 가족을 대상으로 홈스쿨링의 동기와 홈스쿨링의 실시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 홈스쿨링 과정의 어려움 및 대처전략, 그들의 삶에서 홈스쿨링의 의미를 질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홈스쿨링 가족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들의 삶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홈스쿨링 가족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제도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링(Homeschooling)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홈스쿨링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질적 연구가 바람직하다(Padgett, 1998/2001). 이에 따라 연구자는 홈스쿨링 가정의 경험, 그들이 겪는 변화 및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현상학적 방법 중 Giorgi의 분석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독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진술로 통합하는 장점을 지닌다(김분한 등, 1999). 이에 본 연구자는 각기 다른 홈스쿨링 가족의 경험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공통적 의미를 추출하기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Giorgi의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자는 준거적 선택 방법 중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선택(typical case selection)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은 일상 자체를 새롭게 재구조화 하는 과정으로 오랜 시간 학교나 직장 생활을 통해 체화된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선행 연구(서덕희, 2007)에 근거하여 홈스쿨링을 실천한지 2년 이상 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홈스쿨링의 선택은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이혜영, 2000). 하지만 부모의 신념이 홈스쿨링의 실시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가족은 열여덟 가족이며, 부모의 평균연령은 어머니는 만 42세, 아버지는 만 44세였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약 402만원이었으며, 홈스쿨링 지속 기간은 평균 4년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번호	가족원	연령(만)	최종학력	직업	홈스쿨링 지속기간	월 평균 가계소득
1	부	45	석사 졸	목사 전업주부	2007~ 현재까지	200만원
	모	45	대졸			
	자1	15	초등 5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10	공교육 경험 없음			
	자3	6	공교육 경험 없음			
2	부	44	대졸	개인사업 전업주부	2004~ 현재까지	400만원
	모	40	대졸			
	자1	14	초등 3학년 이후 홈스쿨링			
3	부	41	석사 졸	선교단체간사 편집디자인(재택)	2008~ 현재까지	300만원
	모	37	대졸			
	자1	11	초등 2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9	공교육 경험 없음			
	자3	3	공교육 경험 없음			
	자4	1	공교육 경험 없음			
4	부	45	석사 졸	전문번역가 전업주부	2003~ 현재까지	200만원
	모	45	고졸			
	자1	12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10	공교육 경험 없음			
5	부	48	박사 졸	대학교수 전업주부	2006~ 현재까지	800만원
	모	43	석사 졸			
	자1	15	초등 5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12	초등 2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3	7	공교육 경험 없음			

<표 1> 계속

번호	가족원	연령 (만)	최종학력	직업	홈스쿨링 지속기간	월 평균 가계소득
6	부	55	석사 졸	개인사업 전업주부	2003~ 현재까지	500만원
	모	52	대졸			
	자1	17	중국 고등학교 재학중			
	자2	16	초등 3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3	13	공교육 경험 없음			
7	부	38	대졸	회사원 전업주부	2007~ 현재까지	400만원
	모	38	전문대 졸			
	자1	10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6	공교육 경험 없음			
	자3	1	공교육 경험 없음			
8	부	46	대졸	회사원 독서지도사	2004~ 현재까지	400~500만원
	모	44	대졸			
	자1	11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9	공교육 경험 없음			
9) ¹⁾	부	35	전문대 졸	컴퓨터프로그래머 전업주부	2008~ 현재까지	300만원
	모	33	대졸			
	자1	6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3	공교육 경험 없음			
	자3	1	공교육 경험 없음			
10	부	53	석사 졸	목사 전업주부	2007~ 현재까지	200만원
	모	42	대졸			
	자1	16	초등 5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14	초등 3학년 이후 홈스쿨링			
11	부	40	대졸	회사원 전업주부	2006~ 현재까지	300만원
	모	40	대졸			
	자1	10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8	공교육 경험 없음			
12	부	51	박사 수료	목사 전업주부	2006~ 현재까지	280만원
	모	51	석사 졸			
	자1	17	초등 6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15	초등 4학년 이후 홈스쿨링			
13	부	42	고졸	회사원 전업주부	2008~ 현재까지	200~250만원
	모	39	대졸			
	자1	10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9	공교육 경험 없음			
	자3	6	공교육 경험 없음			
14	부	48	박사 졸	대학교수 전업주부	2003~ 현재까지	300만원
	모	44	대졸			
	자1	19	초등 5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16	대안학교 재학 중			
	자3	6	공교육 경험 없음			
15	부	45	석사 졸	목사 전업주부	2008~ 현재까지	250만원
	모	42	대졸			
	자1	9	초등 1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6	공교육 경험 없음			
16	부	41	국외대학 졸	개인교사 공부방 교사	2006~ 현재까지	1000만원
	모	42	대졸			
	자1	9	초등 5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6	초등 3학년 이후 홈스쿨링			

1) 자녀가 미취학 연령인 케이스

<표 1> 계속

번호	가족원	연령 (만)	최종학력	직업	홈스쿨링 지속기간	월 평균 가계소득
17	부	40	박사 졸	대학교수 부모역할강사	2006~ 현재까지	450만원
	모	40	석사 졸			
	자1	10	공교육 경험 없음			
	자2	9	공교육 경험 없음			
18	부	40	국외대학 졸	개인사업 전업주부	2007~ 현재까지	600만원
	모	40	대졸			
	자1	11	초등 3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2	10	초등 1학년 이후 홈스쿨링			
	자3	2	공교육 경험 없음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홈스쿨링과 관련된 몇몇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협조를 구한 뒤 인터뷰에 대한 소개 및 참여자 준거, 연구자의 연락처를 게시글로 남겨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을 소개 받을 수 있었다.

본조사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 준거 및 면접내용이 연구주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준거에 부합하는 두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참여자들의 준거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심층면접 질문과 사회인구학적 정보지를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2010년 6월 29일부터 2010년 9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면접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부부를 함께 면접하였고,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면접 후에 형제자매를 함께 면접하였다. 평균면접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약 2시간이었고 자녀의 경우 약 45분이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홈스쿨링의 시작 동기, 홈스쿨링에 대한 주변의 시선, 홈스쿨링의 초기 단계, 홈스쿨링을 통한 부모와 자녀의 변화, 홈스쿨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이었다. 면접 내용이 부족하거나 분석과정 중 연구참여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와 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고, 전사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는 Giorgi(Fischer et al., 1985/2004)의 4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는 전체에 대한

느낌(sense)을 파악하는 단계로, 전체에 대한 느낌(sense of the whole)을 얻기 위해 개방적인 태도로 녹음된 자료와 전사본을 여러 번 듣고 읽기를 반복하였다. 2단계는 연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해내는 단계로 홈스쿨링의 동기, 과정 및 어려움과 같은 홈스쿨링의 경험에 초점을 지니고 진술에서 의미 단위를 참여자의 말(in-vivo) 그대로 전사본에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단계는 연구 현상을 강조하면서 대상자의 일상적인 표현의 의미단위를 학문적인 언어로 변형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홈스쿨링 가정의 일상이 담긴 생생한 표현들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고, 학문적 용어를 코드화하여 참여가정 별로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였다. 4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를 연구 현상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자는 3단계에서 얻은 케이스별 코드를 유사한 코드들끼리 하나의 파일로 묶었으며, 유사 코드를 묶어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가정의 진술을 통합하고 일반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홈스쿨링 가족의 경험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현상학적 관점에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표 2>와 같다.

1. 홈스쿨링의 선택

연구참여자들의 홈스쿨링 선택 동기는 다양하였다. 공교육에 대한 회의, 부모의 신념,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홈스쿨링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한 가지 이유에 의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홈스쿨링을 결정하였다. 홈스쿨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중은 각 가정마다

<표 2> 가족의 홈스쿨링 경험

주 제	범 주	의미 단위
선 택	공교육에 대한 회의	불쌍한 아이들 무책임한 학부모 불만족스러운 학교
	부모의 신념체계	교육의 다양성 추구 함께하는 시간을 지향함 신앙적인 이유
	자녀의 부적응	발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응과 변화	초기적응의 어려움	구조화된 교과과정의 부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교육자로서 어머니의 부담감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
	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현실	학교를 그리워하는 자녀 교육적 지원의 부재
	함께 성장하는 가족	사회성과 주도성을 지닌 아이 노력하는 부모 가족 응집성 향상
미 래	홈스쿨러의 대학 진학	대학은 자녀의 선택 대학에 대한 자녀의 동경 대학진학의 불리함
	홈스쿨러 지원에 대한 기대	홈스쿨링의 합법화 제도적인 지원

달랐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교육에 대한 회의

연구참여자들은 공교육 제도권 하의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너무 바쁘고(#2, 4, 6, 16), 부모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동적(#4, 5, 12, 15, 16)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홈스쿨러들이 학교라는 확실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기를 희망하였다(#1, 2, 3, 16, 18).

자1: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늦게 끝나요. 숙제도 많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불쌍해요. (#3)

부: 결국 수동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학업만 계속 하게 되는데, 그 학업도 제대로 안하는 상태...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다 듣고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극소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때우고 오거나, 학교 선생님도 시간을 올바르게 잘 쓰지 못하고 대충 때우고 끝... 또 애들이 자기

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그냥 계속 따라가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16)

또한 그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주체적 의식 없이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맡기지만 하는 학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참여자들은 특히 학부모들이 무조건 비싼 학원을 좋은 학원이라 여기고,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18). 물론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3, 4, 13),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없이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수동적인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학교에 보냈을 때 현대 교육문화의 흐름상 자신 또한 수동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2, 3), 자녀를 뒤달릴지도 모른다고 하였다(#3). 이들은 그저 현 교육 시스템에 끌려가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자녀의 홈스쿨링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자녀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모: 근데도 다른 엄마들한테 좋은 학원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딱 떨어지지 않고, 내 자신도 우리 애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아이가 2학년 밖에 안됐는데도 제가 닳달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보내면 안 그럴 자신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다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자신도 솔직히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현혹 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어떤 입시경쟁이나 이런 걸로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3)

연구참여자들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학창시절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학교의 모습은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였다(#6, 7, 8, 14). 또한 공교육은 구조상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은 경쟁위주의 입시문화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년부터 시작되는 과열된 교육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2, 3, 4, 5, 6, 15, 16).

모: 내가 애들 어렸을 때, 학교 매점을 운영하게 됐었어요.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근데 갑자기 학교가 내가 삼십년, 삼십 몇 년 전에 다닌 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세상이 삼십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데 학교 시스템하고 선생님들을 보면. (#6)

자1: 학교는 획일적으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학교, 학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학교 다녔으면 그냥 학교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을 텐데, 홈스쿨링은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하니까. (#14)

2) 부모의 신념체계

부모들에게 학교란 자녀교육을 위한 도구일 뿐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교육 방법은 선택 가능한 것이며(#1, 2, 3, 12, 13),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교육관과 교육 현실의 차이로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적 대안으로 절대적이지 않듯 홈스쿨링 또한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이 때문에 홈스쿨링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 학교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홈스쿨링을 시작한다.

모: 사람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키우는 게 공교육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홈스쿨링을 인정하

는 게 어떨지... (#10)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자녀의 독립 이전인 아동·청소년기에 한정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2, 3, 12, 13, 18). 이에 그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한다(#3, 8, 9, 10, 11, 17).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가 공부에 얽매인 삶을 살기보다는 행복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교실에 갇혀 배움의 즐거움을 모르며 자라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의 참 의미를 아는 자녀로 성장하기 기대하며 홈스쿨링을 실시하였다(#1, 4, 15). 이들에게 홈스쿨링은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선택된다.

모: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려줘야겠다. 배운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알려주고 싶다. 내가 공부하는 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다. 그럼 공부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뭔가를 배우는 기쁨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다... 경쟁 구도 속이 아니고 똑같은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해서 성적 잘 받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여유 있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배움을 주자. 그게 내가 나를 설득하는 방법이었어요. (#1)

개신교 홈스쿨링 가족의 경우 신앙적인 가치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싶다는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들은 개신교 홈스쿨링 단체의 주최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및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홈스쿨링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이러한 정보가 홈스쿨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4, 6, 9, 10, 12, 13, 15).

부: 학습이란 부분에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공교육의 이유는 있지만 가장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신앙교육 측면에서. 저들이 바탕을 두고 인격적인 바탕을 두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는 채워주기 너무 미흡하고 또 학교에다 맡기게 되면 결국 그것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12)

3) 자녀의 부적응

일부 참여자들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홈스쿨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녀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들은 학교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7, 11, 17). 자녀교육의 방법으로 대안학교를 고려하기도 하나, 대안학교의 큰 비용으로 인해 홈스쿨링을 선택한다(#11, 17).

이와 같은 경우 학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그러한 현실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가정에서 직접 실시한다. 부모는 자녀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지지하며,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모: 저희 큰 애가 약간 불안장애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아이가 자기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좀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한테 불안증세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병원에서 진단 받고 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가 즉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심리치료나 놀이치료를 받더라도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좀 감안할 수 없잖아요, 학교는. (#11)

모: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게 작은 애가 유사자폐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 보냈을 때 뒤떨어지게 될 것 같고 대안 학교 같은데 알아보다가, 근데 학교 같은 데는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둘이서 벌어서 다 거기다 쏟아야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홈스쿨링을 하자. (#17)

또한 과도한 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담감에 시달리는 아이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2), 이처럼 자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2)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3) 홈스쿨링 선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아이가 1학년에서 3학년 내내 반장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책임감이 라든지, 아이들에게 잘 보여서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랬었나 봐요.. 우리 아이는 1년 365일 항상 배가 아픈 아이였어요. 그런데 홈스쿨링 하고 배 아픈 게 싹 사라졌죠. (#2)

자1: 학교를 다니면 안 좋은 게 많이 싸우고 그래요 심지어는 애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그러는데, 왜 안 말리냐고 얘기하면 재밌어서 그런다고. 그런 싸움 말리려고 하면 욕하면서 그게 싫었어요. (#3)

2. 홈스쿨링의 적응과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홈스쿨링 선택 이후 초기 적응의 어려움과 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홈스쿨링

가족은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전반에 자율적인 기회 및 시간을 재배치한다. 또한 홈스쿨링 과정을 통하여 부모는 홈스쿨링 이전의 양육행동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로 변화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지며, 자녀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즉 홈스쿨링 과정을 통한 변화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1) 초기적응의 어려움

부모도 자녀도 경험하지 못한 홈스쿨링은 막연하며, 구조화된 홈스쿨링 교과과정의 부재로 참여자들은 홈스쿨링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책이나 인터넷, 홈스쿨링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홈스쿨링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지만, 각 가정마다 다른 교과과정과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홈스쿨링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은 혼란을 겪는다. 이들은 홈스쿨링에 관한 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역설적으로 정보의 빈곤을 경험한다. 구조화된 교과과정의 부재는 연구참여자들의 교육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특히 홈스쿨링 가정의 경우 주교사는 어머니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적 책임감 및 부담감이 증가한다. 자녀들 또한 구조화된 교과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당황한다. 개인 시간의 증가로 얻게 되는 자유로운 생활은 자녀들이 느끼는 큰 장점이지만, 시간의 활용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느껴, 자녀들은 홈스쿨링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1, 2, 12, 14).

모: 처음엔 많이 막연하죠. 경험이 없으니깐, 근데 또 도움을 받으려도 다른 홈스쿨링 가족들을 만나도 혼란스러워요. 만나면 존경스럽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다 다르더라고요. 인식이나 생각이나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래서 더 힘들었죠.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3)

모: 홈스쿨링을 하면서 일단 이 어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은 순간순간와요. 아무래도 엄마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처음엔 힘들죠 많이. (#12)

자1: 아무래도 학교 같은 외형적인 강제성 이런 게 없다보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게 있어요. 학교는 몇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숙제도 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홈스쿨링은 자신의 의지로 동기부여를 해야 하고. 아무래도 시간 관리하고... 자신과의 싸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14)

또한 참여자들은 초기 적응 과정에서 홈스쿨링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자녀들은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2, 13, 18). 부모들은 그들이 꿈꾸던 홈스쿨링의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교육자로서의 능력부족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경험한다(#1, 3, 12, 13, 16). 이러한 두려움은 홈스쿨링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자신의 자녀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그리고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부담이 함께 맞물려 발생하였다.

자2: 형, 누나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 · 고등학생들 보면 막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못 미치니깐.. 되게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려고 있어도 되나,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12)

모: 내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다른 집 보면 엄마, 아빠 다 잘하시는 집들 보면 우리는... 능력도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인데 시작했나하는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가장 큰 거는 아이들한테... 제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 내가 애들 데려다놓고 애들을 망치는 건 아닌가... 제 인격이 바닥을 칠 때, 그럴 때 힘들죠. (#3)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였지만(#2, 4, 9),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24시간 내내, 일 년 365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변화에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어머니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모두 어머니가 감당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가사노동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지치게 하였다(#7, 9). 자녀가 어릴 경우 가사노동 및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은 더욱 크며(#3, 9), 개인적인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답답하게 느꼈다(#16, 18).

모: 처음엔 그게 너무 끔찍했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토요일 날 쉬게 되면 애랑 하루 종일같이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전 막, 니가 이 집을 나가던지, 내가 이 집을 나가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막 이래서, 이랬을 만큼 그랬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일 년 내내 붙어 있어야하니. (#11)

모: 밥 세끼 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가사일과를 포함하여 아이와 놀아주고 가르치고, 다 제가 해야 돼요.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 제가 아이가 셋이어서 그냥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라든지 그런 게 힘들어요. (#9)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들은 홈스쿨링의 선택과 동시에 마주하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을 어려움으로 토로하였다. 홈스쿨링의 선택에 대한 조부모의 반응은 매우 다양한데, 찬성하는 경우(#3, 6, 10, 12, 17)도 있었지만 대체로 학업 성취 및 사회성에 대해서 우려하거나(#4, 9, 13, 14, 15, 16), 강력히 반대하는(#1, 2, 5, 7, 11, 18)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부모의 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은 각 가족마다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은 홈스쿨링 초기에는 조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2, 5), 홈스쿨링 사실을 알리되 조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4, 8, 12, 17). 전자의 경우 홈스쿨링 초기에는 조부모의 반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적응의 과정 이후에는 조부모에게 홈스쿨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대처전략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5).

부: 반대하셨죠. 불안하시니까. 그래도 공교육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학교의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으셔서, 우리가 학교를 안 보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는 아니고. (#18)

부: 홈스쿨링 한다고 했을 때 염려 하셨죠. 처음엔 걱정스러워 하시기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시골에 갈 때마다, 뭔가 이제 잘하는 걸 가지고 가서 보여드리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장인어른께서 음악을 무척 좋아하셔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악기를 항상 들고 가죠. 바이올린, 색소폰을 들고 가고, ... 가서 발표회 비슷한 것도 하게 하죠, 나중에는 아이들이 잘한다고 동네에 오히려 소문을 내셔서 우리 손자들이 홈스쿨링 하는데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자랑거리가 되었죠. (#4)

홈스쿨링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존재하였으나(#4), 일반적으로 유난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3, 5, 7, 8, 9, 11, 13, 16, 17, 18). 자녀를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자녀가 '천재, 아니면 바보'일 것이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연구참여자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자녀들은 학교 시간 이전에 밖에 나갈

경우 자신들을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하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2, 16). 이 때문에 홈스쿨링 초기에 자녀들은 하교 시간 이전에는 밖에 나가지 않거나(#16), 학교에 가지 않냐고 묻는 어른들의 질문에 개교기념일이라고 답하는 등 홈스쿨링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2). 하지만 홈스쿨링 적응 과정 이후에는 홈스쿨링 사실을 밝히고 홈스쿨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홈스쿨링을 설명하는 등 대처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2: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너 거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되게 기분 상하거든요, 잘 모르면서. 그런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막 문제아 인줄 아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막 두 부류로 나누는데 엄청 비뻔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문제아거나 그렇게 봐요. 막 중간은 없어요. (#6)

모: 애들이 처음에는 아침시간에 하교가 되기 이전에 문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볼까봐. '너 학교 안 갔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이제 낮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공원에 가서 그러라고 내보내면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놀다가 이상한 애들로 쳐다보고 학교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오늘 개교기념 일이에요. 학교 쉬는 날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조금씩 자기네들도 이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우리 홈스쿨링 해요' 그러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했어요. (#16)

이러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초래한다. 부모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화를 내기도 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다. 게다가 갈등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하는 환경으로 인해 이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더욱 크게 체감한다(#1, 3, 5, 7, 8, 12, 16). 참여자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홈스쿨링을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까지 경험하게 된다(#1, 7, 12, 15, 17). 참여자들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홈스쿨링 선택 후 곧바로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보다는 '쉼'의 시간을 갖는다.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그들은 홈스쿨링 이전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가정에 적합한 홈스쿨링 과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 본 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안 변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쪼고, 그래서 애들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 과정

에서 서로 의지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엄마 아빠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지지고 볶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5)

모: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 1년 반, 그 동안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녔어요. 뭐 애 아빠랑 가족 여행도 갔다 오고, 뭐, 할머니랑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서 1년 반 동안은 정말 거의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 훑고 다니면서 놀았거든요... 1년 반 동안 놀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바르게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는 서로가 함께 있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11)

2) 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현실

자녀들의 경우 학교 문화에 대한 향수와 동경,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2, 3, 6, 12, 15, 16). 자녀들은 교복을 입은 또래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학급의 반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한 홈스쿨링 커뮤니티를 통하여 친구들을 만나지만, 학교에서처럼 매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동시에 학교생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홈스쿨러들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 재미있을 것 같다(#1, 6, 14, 15, 16)고 하면서도, 동시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만하는 친구들이 불쌍하다거나(#1, 16), 다시 학교 돌아가고 싶지 않다(#15)는 양가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학교와 홈스쿨링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학교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홈스쿨링을 계속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이들은 홈스쿨링을 지속한다. 자녀들의 그리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부모들은 홈스쿨링 커뮤니티 단위의 교복을 맞춰 주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 외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그리움에 대처하는 가족도 있었다. 한 가족의 경우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자녀의 바람에 따라 세 자녀 중 둘째 자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 경우도 존재하였다(#15).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그리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한다.

자2: 처음엔 그냥 그렇게 크게 아쉬움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학교 안 다닌다는 게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동갑인 애들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비슷해도 한 살 어리거나 한 살 위거나 그런 사람들이지. 그 제가 95년생인

데, 95년생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 것 때문에 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홈스쿨링 하면서. (#12)

자1: 저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방학 때 만나면 심심하다고, 학교에 얼른 가고 싶다고 그럴 때 좀 씩씩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끔 제가 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엄마는 가도 된다고 하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애들이 학교가 재미있다고 하니깐 가끔 궁금하긴 해요. (#6)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였으나, 공교육 시스템이나 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나, 홈스쿨링의 선택은 존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자녀는 아무런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속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능력 시험에 응시를 할 수조차 없었고(#16), 교육청의 강의 자료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2)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 4, 5, 10).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홈스쿨링의 변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6, 14, 16), 공교육의 이탈을 반가워 할 수 없는 사회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었다(#4, 8, 9, 10, 14, 16). 대신 이들은 사회의 교육적인 지원 대신 홈스쿨링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른 가족과 교육 활동을 분담하여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인터넷 교육 매체를 통하여 강의를 수강하며, 무료로 이루어지는 문화 강좌 등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있었다.

모: 저희도 교육세를 내는데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왜냐면 그 지금은 이상해진, 위험해진 공립학교에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권리, 적어도 그런 것은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세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내는데, 적어도 교육세에 대한 혜택이 홈스쿨러에게도 어느 정도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10)

부: 제가 홈스쿨링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한 아버지가 이런 색소폰, 플룻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이던 아이들에게 악기를 좀, 음악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모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게 됐죠. (#4)

3) 함께 성장하는 가족

자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인 주변의 우려

와는 달리 홈스쿨러들의 경우 사회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탁월한 사회성을 형성한다. 홈스쿨링의 특성상 또래와의 만남의 기회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회성 발달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홈스쿨러들은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와 만났을 때, 친구 및 놀이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논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홈스쿨러들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탁월한 사회성을 지닌 아이로 평가된다(#7, 8, 18). 즉 이들은 또래 친구와의 만남이 감소하지만, 그것이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성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홈스쿨링 아동들에게 우려하는 사회성이란 또래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불과하나, 홈스쿨러들은 가족 단위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사회성 발달의 바탕이 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폭넓고 탁월한 사회성 발달에 만족하고 있었다(#1, 2, 7, 16, 18).

모: 아이들은 분명히 집에서는 형제들 말고는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우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아이들의 욕구가 보여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는 모습을 보거든요. 홈스쿨링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한, 두 살 정도 차이는 그런 거는 전혀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인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성보다 훨씬 성숙함을 만들어주죠. (#18)

모: 홈스쿨링 부모들 사이에서는 사회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해보니까 가장 탁월하거든. 왜냐하면 공교육은 애들이 만날 만나는 게 선생님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애네들은 전 연령대를 만나요. 엄마 친구도 내 친구, 할머니 친구도 내 친구, 아빠 친구도 내 친구.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 청년부에 보내면 10살 차이 나는 형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형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1)

홈스쿨러들은 홈스쿨링 초기 갑자기 생긴 시간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점차 주도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재배치한다. 자녀는 홈스쿨링 적용 이후 시간을 계획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다. 때때로 홀로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을성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 결과 자녀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목표에 맞게 계획하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자녀로 성장한다. 특히나 홈스쿨러들은 다른 친구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자녀들은 흥대에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2), 자원 봉사를 하고(#6),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1, 5, 6, 11) 등의 경험을 하는데, 이는 자녀의 독립심 및 주도성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다양한 경험이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홈스쿨링 가족이 지향하는 교육 방법이었다. 자녀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들을 탐색하고, 이에 몰두 한다. 하루 종일 기타를 치기도 하고, 책을 보는 등 한 가지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홈스쿨러는 한 가지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의 성취 및 숙달을 이루기도 하였다.

모: 예를 들어 공부를 밥상 차리기로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밥상도 자기가 차린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느 날은 풀만 있고 어느 날은 고기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먹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먹다보면 방귀가 많이 나오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공부를 본인이 스스로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죠. 다른 아이들은 학원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들들 볶아도 자기 주도 학습 안 하려해요. 홈스쿨링은 느리지만 확실한 자기주도 학습이죠. (#16)

모: '학교너머'라는 단체 친구들이랑 무슨 인권관련 바자회에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깐 OO이가 책 파는 걸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애가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뿔 하고 한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거기 캠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OO이가 책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어찌나 소리를 지르면서 장사를 하던지,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2)

모: 기타는 잘 쳐요 거의 뭐 프로급으로 치는데. 홈스쿨링을 딱 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걸 조금 치더니 아빠한테 조금 씩 배우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고문이 시작됐어. 봉고차에서도 치고 어디서든 치는데 한 5~6개월을 치더니 실력이 확 늘고. 학교를 다녔으면 그런 시간이 없었겠지만... 홈스쿨링은 밤낮없이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1)

홈스쿨링이 진행됨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맞는 역할

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주교육자로서, 교육적인 지원을 위해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4, 5, 6, 7, 12, 13). 하지만 홈스쿨링 가족에게 교육의 목적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가 되기 위한 교육의 결과의 성취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통해 자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보다 나은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전의 잘못된 양육행동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4, 7, 10, 12, 13, 14, 15, 16). 이러한 반성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부모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부: 우리가 이를테면 음악교육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공을 해가지고 엘리트 음악가가 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하면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삶을 즐기는 게 중요하죠. (#4)

모: 그래서 나 옛날에 수학의 정석 못 풀었는데 지금 다 풀어주잖아요 그 때는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수학의 정석도 보고, 공자도 배웠어요 아이들 가르쳐주려고... (#6)

모: 홈스쿨링 하면서 세미나도 가고.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 훈육하는 방법,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반성도 많이 하고, 이제는 노력하죠. (#7)

아버지의 경우 직장을 마치고 귀가해 자녀의 체육활동이나 신앙교육과 같은 부분을 담당하며(#2, 3, 4, 15, 11, 15, 17), 홈스쿨링에 함께 참여한다. 또한 가사노동을 분담하고(#5, 7, 10, 18), 어머니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서적인 지원을 한다(#2, 7, 8, 15, 17). 즉 아버지는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 남편한테도 이제 못하겠다, 이러면 남편은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남편의 그런 응원이 되게 힘이 됐던 거 같아요. 심적으로도 많이 응원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힘든데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7)

모: 남편이 함께 해줄 때는 그 체대로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목을 가르치는 거 이상인 거 같아요, 홈스쿨링은. 그래서 아빠가 함께 하지 않으면, 표류하는 거 같아요. (#17)

연구참여자들은 홈스쿨링 초기 자녀와 24시간 함께 하는

변화를 끄찍하게 여기기도하지만(#1, 11), 점차 자녀와 함께하는 생활에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와 자녀의 함께 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하며, 이들은 점차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모: 예전에는 놀토가 제일 힘들었어요. 방학은 끄찍했고. 놀토만 되면 점심만 돼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피곤해요. 지금은요, 우리 식구끼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전에는 여행을 가면 두 집이 나 세집이 놀러가서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부모는 부모끼리 놀고 지금은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비밀로 하자. 왜냐면 우리끼리 가는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우리 식구끼리 있는 게 너무 좋다. (#1)

자1: 아빠랑 옛날엔 많이 서먹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집에도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그냥 서먹하니까 그냥 오시면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 있고.. 많이 대화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홈스쿨링을 한 다음부터는 아빠가 직접 홈스쿨링에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아빠와 많이 친해졌어요. (#12)

홈스쿨링 초기에 참여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의견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여유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증가하는데,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의 화제를 찾는 노력은 부모와 자녀의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함께하는 시간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부모들의 경우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녀를 잘 아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2, 4, 9, 13, 15, 17), 홈스쿨링 과정을 거치며 형제간의 우애는 더욱 좋아졌고(#1, 12, 14, 17, 18), 자녀 또한 누구보다도 부모를 신뢰하고 있었다(#1, 3, 6, 7, 14, 18).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와 부모 그리고 가족 전체가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개인의 변화 차원의 의미를 넘어선다. 홈스쿨링 가족은 결속력이 강화되고, 가족의 의미를 새로이 구성하며, 가족이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모: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내 아이를 보는데 내 아이를 내가 제일 몰라요 내 아이에 대한 평가는 선생님이 해주세요 상담하고 와서, 애는 이걸 잘하는데,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다... 저는 제 아이의 단점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장점도 제일 잘 알고 있고.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9)

자1: 저희 엄마와 아빠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보면 성공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관심이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성품이 곧은 사람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키우시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14)

모: 그러니까 홈스쿨링이 엄마가 교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우리 모두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배워나가는 거고, 처음에는 제가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준비해서 아이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깐, 홈스쿨링은 그게 아니구나. 홈스쿨링은 그냥 생활. 아이와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함께 커가는 것 같아요. (#15)

3. 홈스쿨링의 미래

연구참여자들은 홈스쿨링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홈스쿨링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홈스쿨링을 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점점 증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 추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홈스쿨링에 참여하는 가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대학 진학을 고려하기도 하고, 홈스쿨러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1) 홈스쿨러의 대학 진학

홈스쿨링 가족에게 대학의 진학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1, 4, 15). 대학은 단지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때문에 이들에게 자녀의 대학 진학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 중 열 세 가족은 결국 대학 진학은 자녀의 선택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자녀의 대학 진학을 강력하게 희망하기도 하였지만(#17, 18), 이는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의지는 아니었다(#1, 3, 5, 6, 14, 19). 단지 대학이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깊이 있는 배움을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1, 14)와 자녀에게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1, 2, 3, 5, 16)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의 진학을 희망한다. 즉 과도한 입시 경쟁에 회의를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대학의 학벌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며,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배움의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홈스쿨러들은

대학 진학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으며(#1, 3, 4, 8, 12, 16, 17), 대학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다(#1, 3, 12, 16). 자녀들은 대학을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1, 12),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건(#12, 15, 16)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 대학을 간다고 하면 보내겠지만 꼭 대학을 가야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학을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이 저희에게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 (#15)

자1: 전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학을 가면 세상의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더 심도 있는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1)

연구참여자들에게 대학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지만, 그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1, 5, 6, 12, 14, 17). 각 대학이 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기회가 한정되며 입시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 5, 6, 12, 14, 17). 이들은 홈스쿨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현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은 그나마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외국대학의 진학을 생각하기도 하며(#18), 학점은행제를 통한 대학교육에 대해 고려하기도 한다(#1). 또한 일부 대학에서 홈스쿨링을 수용할 수 있는 흐름이 생겨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모: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가 대학가고 안 가고는 너희의 선택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가 대학을 꼭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뭔가 홈스쿨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형이 새로 생긴다거나, 그런 흐름이 더 생길 수 있다. (#5)

2) 홈스쿨러 지원에 대한 기대

홈스쿨링의 합법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18),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홈스쿨링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홈스쿨링은 법률상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2, 3, 4, 5, 9, 10, 14, 16). 현법은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률에서 의무취학으로 의무교육의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한 하위법의 해석이 문제라는 것이다(#4). 하지만 이들은 홈스쿨링의 변질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법이 해석이 파행적인 교육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을 막는 방위적 기능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16). 그러나 홈스쿨링 가족이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4).

부: 일단, 먼저 법이 바뀌어야 해요. 한 마디만 바뀌면 되거든요. 지금 교육법 시행령, 그러니까 현법은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 취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교육법 시행령이 그 포괄적인 의미를 줄여서 해석해서, 의무취학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법만 바뀌어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죠. (#4)

부: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무취학을 요구하고 있고. 홈스쿨링 자체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홈스쿨링을 인정해주면 우리나라 입시 상황이나 환경을 봤을 때 아주 파행적인 홈스쿨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하기보다는 학원으로만 돌린다면지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공교육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걸 막으려면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되 검정절차를 걸쳐야 되요... (#14)

참여자들은 학력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현재 홈스쿨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기를 희망했다(#2, 3, 8, 14, 15, 16, 17).

부: 단지 될 해주면 좋겠다면, 학력인정이나 이런 거... 홈스쿨링도 하나의 학력으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하면은 아이들이 대학진학과 같은 부분도 상당히 그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죠. 학력인정을 못 받으니까,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애들이 많이 박탈당하죠. (#17)

홈스쿨링의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입장은 연구참여자들이 다 차이가 존재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행정적인 통제를 동반할 수도 있으며, 때문에 가족의 고유한 홈스쿨링 운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즉 정부의 통제는 각 가정만의 특성을 존중할 수 없으며, 이는 홈스쿨링의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

5, 12, 17).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홈스쿨러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즉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홈스쿨링 가족을 인정하고, 방과 후 시설의 이용이나 학교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홈스쿨러들에게도 교육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외에도 홈스쿨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홈스쿨링의 합법화와 학력인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뒤에 교육적 지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14).

부: 저는 생각할 때 정부나 기관이 뭔가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공교육과 같은 시스템화 된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받고 움직인다면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석체크가 이뤄질 수 있다든지. 하나 하나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근데 그런 건 홈스쿨링의 본래 취지를 헤칠 수 있으니깐. (#9)

부: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잘 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들면 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교 운동 시설을 이용을 하게 한다면, 학교가 정말 풍성하게 이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나 우리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17)

부: 지원 방법의 종류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부가 정부가 공교육 외에 다른 형태의 교육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어차피 우리 국민이고 그렇다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교육에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건 승인하는 꼴이 되니까 쉽지는 않죠. 법적으로 승인해 줄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 이게 먼저 해결돼야 다음에 실질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14)

이처럼 홈스쿨링의 정부 지원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은 다양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홈스쿨링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녀교육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부모들의

자녀교육 방법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홈스쿨링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홈스쿨링을 실시한 지 2년 이상이 된 부모와 자녀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공교육 대신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동기를 탐색하고, 홈스쿨링의 실시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홈스쿨링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홈스쿨링 가정의 실질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essence)는 '홈스쿨링은 단순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라는 신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지만,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홈스쿨링을 교육방법 이상의 의미로 인식한다. 즉 홈스쿨링 과정을 통해 생활전반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며, 홈스쿨링은 하나의 "삶의 양식(#2, 5, 8, 10)"으로 자리 잡는다. 본 연구참여자 중 한 가족(#9)은 자녀의 연령이 취학 전 연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다른 참여자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에게 홈스쿨링의 여부는 자녀의 연령이 취학 전 아동이나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양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홈스쿨러의 경우 상당수가 공교육의 경험이 없이 홈스쿨링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Koetzsch, 1997)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 홈스쿨링을 취학 아동에 한하여 정의하는 선행연구(정일환·이명옥, 2006)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결과로 앞으로는 홈스쿨링 아동의 연령을 취학아동에 한정짓지 않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홈스쿨링을 선택하며 공교육에 대한 회의, 부모의 신념, 자녀의 부작용이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가지 요인에 아닌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였으며, 각 가정마다 그 비중이 달랐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동기가 홈스쿨링의 선택의 요소가 된 것이 사실이나, 신앙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다. 즉 현 공교육에 대한 회의, 교육이나 가족에 대한 부모의 신념,

자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홈스쿨링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운동의 측면이나, 신앙적 동기 이외의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홈스쿨링이 결정된다는 연구결과(김민환·권동택, 2000)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참여자들이 공교육에 회의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공교육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공교육을 인정하나, 가정의 가치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홈스쿨링 선택 이후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홈스쿨링 초기 그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데, 구조화된 홈스쿨링의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그들에게 홈스쿨링은 막연하며 이 때문에 홈스쿨링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어머니는 주교육자로서 자녀교육의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자녀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그들은 홈스쿨링 가족을 유별나게 여기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자녀들은 학교에 속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학교생활을 동경하기도 하며,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홈스쿨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생활의 어려움 또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보다는 홈스쿨링이 더욱 좋다는 판단에 따라 홈스쿨링을 지속한다.

홈스쿨링 적응과정 이후 이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한다. 자녀들은 학습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지며, 자신이 원하는 공부에 몰입하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각을 보였다. 부모는 홈스쿨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양육 행동을 반성하며 긍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변화한다. 홈스쿨링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의 공유 활동이 증가하면서 의사소통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응집성이 강화되며 참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홈스쿨링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경험을 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선 가정 전체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홈스쿨링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홈스쿨러의 사회성 및 학업성취도 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홈스쿨링의 사회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따르면 학교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김선자, 2008), 학교생활의 부재는 또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및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기회를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진대원, 2001). 그러나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홈스쿨러가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에 비해 또래친구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홈스쿨링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홈스쿨링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홈스쿨러의 사회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결과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김선영(2009)은 홈스쿨러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사회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홈스쿨러의 사회성에 대한 막연한 비판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홈스쿨링 가족은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가질 수 없으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함께 공부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는 등의 자녀의 학업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홈스쿨링 아동의 학업성취는 일반 학생보다 낮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학생들보다 학업성취가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Galen & Pitman, 1991; Romanowski, 2001).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대학의 진학을 고려하기도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홈스쿨링 가족의 삶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홈스쿨링의 합법화와 홈스쿨링의 학력 인정을 요구하는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홈스쿨링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홈스쿨링 가정에 행정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등의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학교라는 공교육에 한하여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로 의무교육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홈스쿨링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김재웅, 2009; 이병환, 2008). 한편 홈스쿨링이 자칫하면 변질된 사교육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김현주, 2007), 때문에 홈스쿨링의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논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홈스쿨링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묵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홈스쿨러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홈스쿨링 가정의 수를 파악하고, 현재 하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취학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인 교육지원은 모두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홈스쿨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기존의 학교를 통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아동 개개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홈스쿨러 개인이나 홈스쿨링 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교육자로서 큰 부담을 느끼는 부모에게 교육 및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홈스쿨링 가정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각 가정이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의의 및 제언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링 경험에 관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학 분야에서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는 홈스쿨링의 운영 및 실태 파악에만 치중했을 뿐, 홈스쿨링 가족의 삶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링 선택의 동기와 과정, 변화를 탐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홈스쿨링은 가족의 신념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홈스쿨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합의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 전체를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서, 홈스쿨링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관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홈스쿨링의 기간은 그들의 적응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로 본 연구에서는 홈스쿨링 기간이 2년 이상 된 가정으로 한정하여 가족의 홈스쿨링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홈스쿨링의 선택 및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고 홈스쿨링의 의미를 이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홈스쿨링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홈스쿨링 경험이 2년 이상 된 부모와 자녀를 참여자 준거로 하였다. 이에 홈스쿨러들의 연령 및 학교 경험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녀의 학교 경험 유무와 발달 상황에 따라 부모의 역할 및 자녀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녀의 연령 및 학교 경험 유무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권근숙(2002).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현황과 실천사례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환(2008). 홈스쿨링 제도화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8(1), 43-64.
- 김민환 · 권동택(2000). 미국 홈스쿨링의 성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10(1), 257-280.
- 김분한 · 김금자 · 박인숙 · 이금재 · 김진경 · 홍정주 외(1999). 현상학적 방법의 비교고찰.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선영(2009). 홈스쿨러와 일반학생의 사회성 비교를 통한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자(2008).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웅(2009). 의무 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열린교육연구, 17(1), 1-24.
- 김진숙(2004). 홈스쿨링(Homeschooling)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홈스쿨링 실태와 인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7). 홈스쿨링을 하는 청소년의 인식 탐색; 동기, 어려움, 해결책. 교육연구논총, 28(2), 99-122.
- 김혜실(2007). 한국의 홈스쿨링 운영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2008). 기독교 가정을 위한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연구, 19(1), 174-199.
- 반성숙(2002).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홈스쿨링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덕희(2006).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덕희(2007). “여유”의 교육적 의미: 홈스쿨링의 시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25(2), 63-90.
- 서덕희(2010). “나를 넘어선다는 것”: 홈스쿨링을 통해 본 ‘부모되기’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41(2), 121-153.
- 이명옥 · 정일환(2008).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의제설정 과정 비교. 비교교육연구, 18(2), 69-98.
- 이병환(2008). 미국 홈스쿨링(Home Schooling)의 동향과 특성. 중등교육연구, 56(1), 24-50.
- 이혜영(2000). 한국의 홈스쿨링 운동의 현황과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6(1), 190-134.
- 정일환 · 이명옥(2006). 미국 홈스쿨링의 제도화 과정분석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6(4), 85-112.
- 주은희 · 박선희(2009).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아동학회지, 30(12), 237-248.
- 진대원(2001). 홈스쿨의 현황과 문제점 보완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www.nso.go.kr.
-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www.nso.go.kr.
-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www.nso.go.kr.
- 현병호(2001). 대안교육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전망. 진보평론, 1(10), 101-123.
- Divoky, D.(1983). The new pioneers of the home schooling movement. Phi Delta Kappan, 64(6), 395-398.
- Fischer, W., Giorgi, A., & Wertz, F.(1985). 신경림 · 장연집 · 박인숙 · 김미영 · 정승은 역(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Galen, J. V., & Pitman, M. A.(1991). *Home schooling: Political, historical, and pedagogical perspectiv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Griffith, M.(1998). 최승희 역(2001). 미국 부모님들이 말하는 홈스쿨링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 미래의 창.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www.hslda.org

Koetzsch, R.(1997). *The parents' guide to alternatives in education*. Boston: Shambhala Publications.

Mayberry, M., Knowles, J. G., Ray, B., & Marlow, S.(1995). *Home schooling: Parents as educators*. Thousand Oaks: Corwin Press.

Medlin, R. G.(2000). Home schooling and question of socialization.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5(1), 107-123.

Montgomery, L. R.(1989). The effect of home schooling on the leadership skills of home schooled students. *Home School Researcher*, 5(1), 1-10.

Padgett, D. K.(1998).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

Ray, B.(2000). Homeschooling: The ameliorator of negative influences on learning.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5(1), 71-106.

Romanowski, M.(2001). Common arguments about homeschooling. *The Clearing House*, 75(2), 41-56.

Taylor, J. W.(1986). Self-concept in home-schooling children. *Home School Researcher*, 2(2), 1-3.

접수 일 : 2011년 04월 10일

심사 일 : 2011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8월 08일